



우즈베키스탄의 영웅·서사시의 주인공인 '알파미시'(Alpamysh)의 탄생지로 알려진 수르한다르요(Surxondaryo) 보이순(Boysun) 지역 전경. 사진 아래는 수르한다르요의 주도(主都) 테르미즈에 있는 알파미시의 동상으로, 신궁(神龕)이었던 그를 상징하는 청동활이 인상적이다.

/타슈켄트=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조국 위한 헌신과 투쟁의 건국 영웅...주몽과 닮아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2> 기마민족 전사 '알파미시'



타슈켄트 = 윤영기 기자

"내 하얀 철갑 투구를 쓰고, 다이아몬드
칼을 칼집에서 뽑아 적을 쓸어버리겠다.
성난 낙타가 돼 울부짖고 분노로
타오르는 사자가 되겠다. 흥폭한 호랑
이의 목을 따버리겠다."

(부족통일 나선 알파미시 출정기)

**문화수도 광주
광주일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전설의 영웅 '알파미시' (Alpamysh)의 탄생지 보이순(Boysun). 아프가니스탄과 접경지에 있는 보이순을 찾아가는 길은 1000년 전의 인물인 알파미시를 만나려는 일처럼 아득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승용차로 고박 10시간을 달려야 달을 수 있었다. 구불구불한 길ين데다 암스屈도로 임에도 편 곳이 많아 비포장 도로와 다름없는 길이어서 더 지체했다.

보이순은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르요주에 있는 소도시로, 수도 타슈켄트에서 800km 떨어진 남쪽 끝자락에 있다. 도로 양쪽으로 제주도의 오름 같은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이순은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르요주에 있는 소도시로, 수도 타슈켄트에서 800km 떨어진 남쪽 끝자락에 있다. 도로 양쪽으로 제주도의 오름 같은 낮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부족 통일·목숨 건 사랑 등...우즈벡 국민이 가장 사랑

에서 풀을 드는 양과 말떼, 체관(형형색색 줄무늬가 있는 코트 같은 긴 상의)을 입은 목동, 나귀를 타고 가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풍경이 훌새없이 이어졌다. 우즈베키스탄 국토 면적이 한반도 두 배에 달하며 70% 가량이 사막과 초원이고 나머지가 산이다.

보이순은 영웅 알파미시가 태어난 곳이다.

알파미시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과 매우 닮았다. 둘 다 무예에 능한 신궁(神龕)이었고 역경을 딩고 부족을 통일한 건국 영웅이다. 부족을 떠난 영웅의 기적적 생활, 형제간의 반복, 연인과 사랑, 배신의 드라마가 씨실과 날실로 얹혀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을 안내한 가이드 수흐롭(38)씨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TV에서 방영된 한국 드라마 주몽이 큰 인기를 끈 것도 알파미시의 전설과 비슷한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우리나라의 면 소재지 규모인 보이순에서 전설에 등장하는 알파미시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주민들로부터 전설을 들을 수 있었다.

알파미시는 보이순의 한 부족이었던 쿠그라트족(族)이다. 그의 태생과 유년기는 어느 신화나 전설의 주인공처럼 비범하다.

그는 아버지인 바이부르(쿤그라트 족장)가 노년에 40여일 기도 끝에 신의 계시를 받아 태어난다. 7살 때 청동 활로 화살을 쏘아 아스카르 산 정상을 무너뜨린다.

취재진이 현장에서 만난 신호 부부들이 알파미시

동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활용하는 것으로 미뤄, 그에 대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사랑을 엿볼 수 있었다.

알파미시의 고난이 시작된 것은 정혼자인 바르친이 가족과 함께 쿠그라트족을 떠나 칼미크 지역에 정착하면서부터. 그는 강제결혼을 위기에 빠진 정혼자 바르친을 구하기 위해 '호랑이 입'이나 다름없는 칼미크로 들어간다.

칼미크 왕자 7명이 바르친에게 "자신들 중 한 명을 택하든지, 공유(共同所有)부인이 되라"고 험박한 탓이다.

바르친은 자락을 발휘해 무예대결의 승자를 남편으로 삼겠다는 서약을 한다. 알파미시는 4000보 밖에서 동전 맞히기, 격투기 경기 등 무예대결에서 우승자가 되어 사랑을 쟁취한다.

전설에 등장하는 유목민의 전통 마상경기인 '울라크'(상대편의 염소 빼앗기 대회)와 '바이가'(말을 달려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면 승자가 되는 경기)는 지금도 우즈베키스탄 곳곳에서 재연되는 가장 인기있는 행사다.

알파미시와 칼미크 무사들의 출전장면은 과장의 극치다. "칼미크인 무사가 분노해 미쳐 날뛴다면 돌을 놓이고, 얼음을 녹인다네. 이 거인이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면, 그 발자국 흔적에 한 가마니의 씨앗도 뿌릴 수 있다네"

바르친이 무예대결에 출전한 알파미시의 승리를 응원하는 대로는 시작이고 관능적이다. "치바르여, 내 님의 말이여, 좀 더 힘차게 달려라. 하야 내 쳐다 가슴이 너를 위한 고산의 목장이 되어 줄 것이다. 금강석 같은 다리를 가진 말이여, 1등으로 들어와라. 내 가슴의 눈 덮인 두 언덕을 밟아라."

알파미시는 바르친과 결혼한 뒤 귀향했으나 바르친의 아버지가 칼미크의 지배자 수르하일에게 전재산을 빼앗기고 노예로 전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별에 나선다.

그의 출정기는 기마민족의 호연지기와 분노, 용맹이 드러난다. "내 하얀 철갑 투구를 쓰고, 다이아몬드 칼을 칼집에서 뽑아 적을 쓸어버리겠다. 성난 낙타가 돼 울부짖고 분노로 타오르는 사자가 되겠다. 흥폭한 호랑이의 목을 따버리겠다."

알파미시는 그러나 교활한 수르하일의 계략에 빠져 병사들을 모두 잃고 천길 구덩이에 빠져 7년 동안 영어의 세월을 보낸다. 이 구덩이는 우즈베키스탄 무즈리바스트키 지역과 세리밧스키 지역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목민의 영웅을 혼곡의 세월에서 구한 것은 자명(고(自明)·외(外明) 침입할 때 스스로 옮겼다는 복)을 엮은 낙랑공주와 같은 인물이다. 칼미크 지배자 수르하일의 딸은 알파미시를 사모하게 되고 탈출을 돋는다. 알파미시는 구덩이에서 벗어난 뒤 수르하일을 죽이고 부족의 통치권을 손에 넣는다.

우라질리 우즈베키스탄 문화체육부 민속과학원장은 "알파미시는 우즈벡 민족의 독립과 통일, 민족의 정서를 문운과 산문의 형식으로 엮어놓은 예술성 높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penfoot@kwangju.co.kr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Global 여행 기업입니다.

여행 문의 1577-6511

ccm
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2011년 1월 1일 여행업계 최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획득

하춘화
효(孝)
디너쇼

“㊗오픈”

“대리점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 062-228-6644

입점 가능 매장: 광주 전남/전북 롯데마트 및 로드샵

5th 창립 5주년

Surprise

www.LOTTEJTB.com

롯데카드 5% 청구할인
해외여행 200만원 이상 결제 고객

LOTTE DUTY FREE

롯데면세점 선불카드 5만원권 증정
후천상품 200만원 이상 결제 고객

LOTTE Members

롯데멤버스 포인트 최대 0.5% 적립

롯데멤버스로 조인 마감될 수 있습니다

★3대 특식제공/서비스관람 북경/만리장성 ★준5성급호텔

369,000 원부터 ▶5/15, 18, 22, 29 6/1, 5, 8, 12, 15~

★일정 및 특전 ★무인·북경(3/4)·무안 ★중복항공료, 특급호텔 (2인실) 제공
★만리장성, 이화원, 천안문화원, 청장, 자금성, 천단공원, 서커스, 밤사자

★인솔자 동행 / 팀 포함 북경/만리장성 + ★수면왕조소

699,000 원부터 ▶5/15, 18, 22, 29 6/1, 5, 8, 12, 15~

★일정 및 특전 ★무인·북경(3/4)·무안 ★북경항공료, 특급호텔 (2인실), 만리장성
★이화원, 명13성, 천안문화원, 술리나, 북경서비스, 부국해저세계, 밤사자

★일석이조 (북경&황화산) 북경&★중국의 그랜드캐년 태향산 괴의 만남 5일

749,000 원부터 ▶5/15, 18, 22, 29 6/1, 5, 8, 12, 15~

★무안출발 북경 전상품 유류할증료 볼포함

4/5일

4/5일